



뉴욕의 아트 컨설턴트 강희경 씨 컬렉션은 꿈을 이루는 보물 상자다



현대 미술의 중심지 뉴욕에서조차 '아트 투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1999년, 사람들은 아트 투이 하면 패러다임 아트(www.paradigmart.com) 대표 강희경(Christina Kang) 씨를 찾았다. 그는 요즘도 갤러리만 6백여 개 있는 '미술의 전쟁터' 뉴욕에 살며 선두적인 아트 투이 전문가이자 아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 열혈 게이머 우인의 불같은 추진력 이면에는 동물처럼 본능적이고 식물처럼 예민한 감수성이 숨어있다. 그의 감수성이 발휘된 창구는 바로 12년 동안 모은 현대 미술품이다. 일을 하며 작품을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고른 작품을 곁에 두는 것 또한 엄청난 카타르시스였다.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생애 첫 컬렉션이 생겼어요. 몸이 아파서 잠시 한국에서 쉬고 있을 때 용돈이 조금 모였는데, 저 자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작품을 선물하고 싶더군요." 그 무렵 강희경 씨는 PKM 갤러리에서 재미교포 코디너 최씨의 조각 작품 'The Thinker'를 만났다. 갤러리 하면 으레 허얀 벽면을 떠올리는데 이 작가는 벽면 모서리를 전시 공간으로 삼아 작품을 만들었다. "당시 저는 여러모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한국 여성으로서, 사회의 공식대로서라면 결혼해서 앞전의 가정을 꾸리아 했을 텐데 저는 갈래와 편견을 깨고 제 뜻을 펼치고 싶었거든요. 그런 잠재의식이 이 독특한 작품을 선택하게 했어요."

그 이후 만난 작품들도 모두 그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졌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주제로 그리는 작가의 그림에 감응했다. 작년 초 몸이 급격히 나빠져서 일을 쉬고 있을 때는 마돈나와 히틀러의 얼굴을 제치 있게 결합한 그래픽 작품 '마돈나'를 만났다. 문화의 여제와 정치적 독재자를 한데 엮다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감성 비타민'을 복용한 그는

1 강희경 씨는 9년 동안 1천이 넘는 작품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이라고 두 달로 뉴욕 사회 예술의 인공간을 탐험하는 아트 투이 전문가이자 아트 컨설턴트이다. 2 마돈나와 히틀러의 얼굴을 원묘하게 결합한 작품 '마돈나'는 그래픽 디자인 출신의 작가 스톤 영의 작품이다. 환몽인 전경이 놓여 있던 강희경 씨에게 비타민 같은 뉴욕은 없었다. 왼쪽에서 뉴욕 맨해튼이라 쓰여 있는 강희경 씨의 사무실 길 적색 공간. 오른쪽에는 오래되어 반질반질한 엔타크 테이블과 모던한 디자인의 의자를 배치해놓았다. 장면이 보이는 최 씨 작품은 그래픽 디자인이다.



**강희경 세의 아트
인테리어 노하우**

**1 작은 공간 속 작은 작품을
부시하치마세요** 모퉁이, 틈새, 장물들 등을 단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뒤 소품을
눈에 띄게 놓아보세요. 좁
아서 몰랐다고 여겼던 공간도
훌륭한 갤러리가 됩니다. **2**
**믹스 매치와 컬러를 기
역하세요** 서로 다른 작가가
만든 조소 작품도 본이 비슷
하거나 형태가 달랐다면 함
께 놓아보세요. 이 어울릴
도런 작품이 됩니다. **3****고정
관람에서 벗어나세요** 작품
은 눈높이에 맞추어 걸어야
한다! '작품은 소파 재판을
맞추어야 한다' 같은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원
자유롭게 작품을 걸 수 있
습니다. **4****화장실도 갤러
리화** 하루 중 가장 빈
번하게 드나드는 곳이 바로
화장실 아닐까요. 습기
강한 작품을 걸면 꽤 기분 좋
은 화장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엘리트의 모던 작품을 꼭
차이보세요** 기성품이나
부대리품에 반듯한 작가의
모던한 빨간 피자를 놓으면
아이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났다. "제 컬렉션을 보노라면 작품을 만났을 때의 정황과 시선이 줄
줄이 떠올라요. 제게는 컬렉션이 일기처럼 사적인 인간사예요."

"미술 작품은 와인과 같아요. 워라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미묘하고 복합적인 맛. 정답이 없
어서 자기만의 맛을 찾아 떠나게 만드는 매력... 와인과 작품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자꾸 빠져
들게 됩니다." 또한 그가 모은 작품들은 내면을 부영한 거울과도 같다. 살면서 미치지 만나지 못
한 숨겨진 자신을 컬렉션이라는 거울이 비추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자기를 바로 보는 것만큼 후
련한治愈는 또 없을 듯하다.

"제가 자에게 선물하는 작품만큼은 즐겁고 유쾌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암울한 작품
은 구입하지 않아요. 물론 다소 어두운 작품도 갖고 있지만, 이 작품들은 기쁨이나 희망 등 복
합적인 정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컬렉션을 'sweet and sour(새콤달콤)'라고 표
현했다. 즐거워서 달콤하고, 톡톡 튀어서 새콤한 그런 것. 작품을 집에 진열하는 묘미도 매놓을
수 있다. 그의 테크레이터인 콘셉트는 '혼돈 속의 질서'다. 여러 장르의 작품이 저마다 개성을 반
짝이며 혼돈스럽게, 동시에 '강희경'이라는 향기를 따르며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다.

스카프 하나도 인타넷으로 구매해본 적이 없다는 그는 작품을 구입할 때도 작품은 물론 작가
를 만나보고 산다. 이를 통해 그가 살피는 것은 세 가지. 바로 작가의 진정성, 인간애, 성실성이
다. 밑바닥부터 정성을 분출할 수 있는 진정성, 질곡의 삶이 빚어낸 '사리' 같은 인간애, 그리고
꾸준하고 근면한 자색인 성실성이 있느냐를 본다. 심사숙고해서 고르기 때문에 저급 구입한
80여점의 작품 중 어느 한 점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되喃 적도 없다.

"사실 제 수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집가들은 대개 '그저 좋아서' 모은다고 하는데 의외다.
"10년 안에 제 컬렉션으로 장학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미술 작품을 접하지 못하는 빈곤한 아
이들을 갤러리로 초대해 작품을 보여주고 직접 도슨트가 되어 아트 투어도 해주려고요." 사실
그는 내 몸, 내 마음 하나 위한 삼으려고 수집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만족과 도취에
빠지는 수집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인간의 희로애락을 모두 담은 현대의 명작들
을 선별해 컬렉션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한 이기가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작품 한 점
을 만날 수 있다면 비할 것이 없겠지요." **강희경** 글 나미연 기자 사진 김재석



1 엘런 맥밀런의 유색한
오르케 작품으로 뒷면에
"THANKS"라고 적혀있다.
2 빨간 장도는 작가에 오르
케 작품을 오종홍하게 모
아두었다. 벽면의 회화는
바이런 김 씨의 사진 작품
"What I See", 앞쪽의 분홍
색 오르케는 앤들 개들의 작
품으로 실내 조명으로 활
용하기도 한다. **3** 코너를
활용한 제이안 디스플레이
구분정리의 회화 "가시 먼
유란"과 코디 씨의 "The
Thinker". **4** 공간 중앙에
치러진 기둥에 미러링 가
베시의 인격을 걸어 갤러리
도 활용했다.

